

# 시청률 10%대 무너진 '1박2일 4', 연이은 하락세 이유는

### 지난해 12월8일 첫 방송 12.5%·15.7%로 출발 순한 예능·새얼굴·편성 등 영향에 시청률 소폭↓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시즌4' (이하 '1박2일 4')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지난 1월26일 방송된 '1박2일 4' (이하 '1박2일 4')는 지난해 12월8일 첫 방송된 '1박2일 4'의 시청률 12.5%·15.7%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 시작을 알렸다. 2회 역시 1부 11.6%, 2부 15.1%로 첫 방송의 기운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듯 보였다.

하지만 3회부터 시청률이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4, 7회에서는 조금 반등하기도 했으나 0.5%p 이하로 의미 없는 수치인 데다, 이를 제외한 회차는

1~2%p가 떨어졌다. 1회와 가장 최근 방송된 8회를 비교하면 6% 정도 차이 가나 격차가 크다.

인기 예능이 하락세를 나타낸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일단 '1박2일' 시리즈를 좋아하던 시청자들은 새 시즌만의 분위기를 낫설게 느끼고 있다. '복불복' 형식을 중심으로 개입을 진행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기존보다 '덜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자극적인 재미는 떨어진다는 평이다. 이 '순한 맛'이 주는 재미를 소소하게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기존의 '독한' 예능을 기대한 시청자들은 아쉬워하는 것.

또한 김종민을 제외한 시즌 4 멤버들은 '1박2일' 시리즈에 처음 등장한다. 이제서야 조금씩 서사를 쌓고 '캐미'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큰 웃음을 주기에 아직 부족하다.

더군다나 연정훈, 김선호는 고정 예능 자체가 처음이기에 천천히 예능감을

발산하고 있다. 결국 멤버와 시청자 모두 새 시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편성도 '1박2일 4'에 영향을 미쳤다. '1박2일 4'가 론칭하면서 MBC는 '복면가왕'의 편성을 동 시간대인 오후 6시20분으로 이동했다. '복면가왕'은 지난 2015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정수 인기 예능.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기에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SBS 역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집사부일체'로 '1박2일 4'를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역시 '1박2일 4'의 시청률 하락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KBS 내부에선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진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희 KBS 제작2본부장은 뉴스1에 "'1박2일'이 워낙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라 주목도가 있어서 시즌 초반에는 시청률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멤버들 사이 관계가 만들어지면 매력도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들 잘해주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 '슈돌' 강개리, 3년 만에 방송 복귀→아들 하오 최초 공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개리가 아들과 함께 돌아왔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 '슈돌') 315회는 '우리 사

랑은 영원하오'라는 부제로 시청자를 찾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래퍼 개리와 그의 아들 하오가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했다. 예고부터 화제가 된 26개월 하오의 치명적인 매력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공개된 사진에는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에 인사를 하는 개리의 아들 하오가 담겨있다. 또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우쿨렐레를 품에 안고 연주를 하는 하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날 하오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찾은 '슈돌' 가족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며 불인성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오가 사용하는 단어들이었다고. 10개월부터 말을 시작했다는 새로운 언어 천재 하오의 표현들이 현장의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하오는 말을 잘하는 만큼 자신의 취향을 확실하게 표현했다. 좋아하는 노래부터 옷까지, 모든 것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오와 이런 하오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개리 존중' 개리 아빠의 하루가 '슈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뉴스

## 유재석·김태호PD가 이룬 방송 대통합

### KBS 1 '아침마당'과 컬래버 케이블 comedy TV도 등장 다음주 EBS 펑수도 출연 예정

유재석과 김태호PD 앞에서는 방송국의 문턱이 낮아진다. 유산술 당시 KBS 1TV '아침마당'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이뤘던 콤피디언 케이가 이번에는 케이블 채널인 comedy TV와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 다음주에는 EBS의 연습생 펑수까지 출연할 예정이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방송국의 대통합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comedy TV 대표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의 네 개그맨 일명, '똥'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 문세윤이 인생라면에 등장했다.

이들의 출연은 일종의 컬래버레이션이었고, '합방' (합동 방송)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합방' 사실을 알지 못한 유재석과 똥4는 서로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줬다. 이내 유재석은 마침 만든 짬뽕 라면 국물을 멤버들에게 권했고, 네 사람은 당황스러움도 있고 훌쩍 훌쩍 국물을 흡입하기 시작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국물에 유재석은 "감주 퍼주는 것도 아니고 공복에 무슨 국물을 이렇게 감주 먹듯이 먹느냐"고 표현했다.

유재석은 네 명의 후배를 앞두고 특유의 MC 본능을 발휘,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 "펑수 라면을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라는 유재석의 질문에 김준현과 김민경 등 "그런 것들은 다 저희 질문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말이 많은 식당 주인에게 눈치를 줬다.

이후 방송은 '맛있는 녀석들'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재석은 유재석을 닮은 라면 전문점 사장님으로 본분에 충실한 방송을 보여줬다.

똥4의 주문은 끝이 없었다. 라면 국물 '떡방'을 포함해 무려 6개의 코스로 라면을 먹어치웠다. 이들은 첫 라면인 유산술 라면이 나오기도 전에 밥과 김치, 찹치 등을 식당에서 직접 찾아먹으면서 에피타이저로 삼았다. 유산술 라면을 맛본 후에도 특선 간짜장 라면, 짬뽕 라면에 이어 김준



현과 문세윤이 만든 김치 비빔 라면까지 해줬다.

김치 비빔 라면은 네 사람의 라면을 풀이느라 고생한 선배 유재석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유재석의 말처럼 김준현은 김치 국물과 각종 야채들을 얹은 비빔 라면을 선보여 유재석의 찬사를 끌어냈다. "여긴 정말 지옥이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던 유재석도 잠시 고생을 잊은 듯 웃었다.

유재석이 지난주부터 보여주고 있는 인생라면은 독특한 메뉴와 의외의 게스트들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유재석과 '무한도전'에서 좋은 박명수 정준하가 출연해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입담으로 웃음을 줬다. 두 사람은 '무한도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홍현희와 양세형이 등장해 유재석과 선배와의 재밌는 호흡을 보여줬다. 음식에서는 누구보다 까탈스러운 이들이기에 여러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면서도 요구를 들어주는 유재석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그뿐 아니라 다음주 인생라면에서는 유재석이 어려워하는(?)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과 함께 등장할 예정이라 기대감을 줬다. 또한 예고편에서는 대세 스타 펑수와 만나 진한 뽀빠리를 나누는 유재석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씨네타운' 박선영, 울컥한 마지막 인사

### SBS 파워FM '씨네타운' 5년 만에 하차 "그리울 것"

박선영 SBS 아나운서가 울컥한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5년 만에 '씨네타운'을 떠났다.

2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씨네타운'은 박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하차를 맞아 그가 청취자들과 함께 그간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아나운서는 오프닝에서 박 아나운서는 영화 '안녕, 헤이즐'의 작별 인사 속 대사를 읽었다. 이와 함께 "이 대사가 오늘 내 마음이다. 세상 모든 일엔 끝이 있지만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무수한 추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정말로 고맙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많은 날이 행복했다. 언제까지고 그리울 것"이라 말했다.

박 아나운서는 "끝이 아닌 것처럼 인사

하고 싶다"며 유쾌하게 방송을 이어갔다. 그는 청취자들의 문자를 통해 가족 사사회를 했던 일, 커피를 주느라 마지막 인사를 못했던 일을 추억했고, 청취자들끼리 만나 결혼했다는 사연에는 무척 기뻐했다. 또한 '항상 응원하겠다'는 청취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아나운서는 사연을 읽던 중 청취자들이 퇴사 후 거취를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답변했다. 박 아나운서는 "(퇴사 후) 일정을 궁금해 하는 분들 많다. 나도 궁금하다"며 "아무런 계획이 없다. 쉬겠다는 계획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쉬다가 일을 하지 싶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방송에는 '씨네타운'과 인연이 깊은 배우 박정민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정민은 박 아나운서의 퇴사와 '씨네타운' 하차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당황스러웠으며 "너무 고생이 많았다. (떠난다

니) 아쉽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 '동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연을 이어가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함께 추억하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청취자들은 박 아나운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 청취자는 "1549년의 매일을 감사했다"라 말했으며, 또 다른 청취자는 "똥 덕분에 수월생활을 버렸고, 근사한 곳에 합격했다. 최고의 DJ였다. 이제는 인간 박선영의 일상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아나운서는 울컥하며 "함께하는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아지는 신기한 매일매일이었"고 하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아나운서는 퀸의 '위 아 더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s)을 선곡하며 "저는 이 음악을 피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라고 끝인사를 했다.